



해외 소식 해외 소식 해외 소식

▶ **독일**

발암물질 사료 파문, 500개 농장 폐쇄

해외 소식 해외 소식 해외 소식

▶ **인도네시아**

닭전염병 발생 280만수 도살

해외 소식 해외 소식 해외 소식

▶ **영국**

축산쓰레기 이용하여 전기생산

해외 소식 해외 소식 해외 소식

▶ **이스라엘**

깃털 없는 닭 육종 착수

해외 소식 해외 소식 해외 소식

독일

발암물질 사료 파문, 500개 농장 폐쇄

독일 양계농가에 공급된 사료에 제초제 성분인 니트로펜이 함유된 것으로 밝혀짐에 따라 500여개의 기업형 농장이 잠정 폐쇄됐다고 독일 언론들이 지난 6월 12일 보도했다.

독일 공영 ARD 방송은 사료 창고에서 니트로

펜 성분이 발견된 독일 동북부 메클렌부르크-포어포메른 주의 생태농장들이 폐쇄됐다고 밝히고 인근 브란덴부르크주에까지 농장 폐쇄조치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제초제로 사용되는 니트로펜 성분은 암을 유발하는 것으로 드러나 지난 1981년부터 사용이 금지됐다.

지난 5월 독일 언론들은 5개주 120여개 '바이오 사료' 생산 공장에서 니트로펜이 함유된 사료가 생산됐으며, 문제의 사료를 먹은 닭에서 나온 닭고기와 계란이 시중에 광범위하게 유통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라 독일 최대의 유통체인인 메트로와 슈퍼마켓 체인 에데카는 매장에서 바이오 계란과 닭고기가 함유된 소시지 등을 철수시켰다.

발암물질 사료 파문은 광우병과 구제역에 이어 또다시 식품의 안전성을 위협하는 것으로 농산물 시장 및 식품 시장에 연쇄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독일 농업부는 이미 지난해 12월 니트로펜 함유 사료가 생산된 사실을 알고 있었으나 이를 은폐해오다 언론에 크게 보도되자 뒤늦게 진상 파악과 대책을 마련에 나서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출처 : 베를린=연합뉴스

인도네시아

닭전염병 발생 280만수 도살

인도네시아는 올해 초 사상 최악의 가축 전염병이 확산돼 양계용 닭 280만여마리를 도살했다고 영자지 자카르타 포스트가 지난 6월 6일 보도했다.

서부 자바주(州) 주정부의 무스니 수아트모조 가축질병 담당 국장은 6월 5일 금년 1/4분기 동안 전염 속도가 매우 빠르고 감염되면 치료가 불

가능한 치명적인 가축 질병 '마렉병'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주의회에 참석해 "인도네시아의 집단 양계 지역의 치아미스와 타시크말라야에서 시작된 마렉스병의 확산 방지를 위해 1/4분기에만 영계 2천8백여만마리를 도축했다"고 말했다.

군(郡) 단위 지역인 치아미스와 타시크말라야는 매주 1천9백만마리의 닭고기를 수도 자카르타를 비롯한 인근 시장에 공급해왔다. 무스니 국장은 또 "이번 마렉스병 확산 규모는 인도네시아 역사상 가장 크다. 질병 유발 원인을 조사 중이다. 일부 닭들이 여전히 감염되고 있으나 전체 발병 건수는 크게 감소했다. 이 병은 인체에는 악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말했다.

포진(抱疹) 바이러스 감염으로 발병해 가축압을 유발하는 마렉병은 림프세포 증식과 식욕 상실, 무기력, 고열이 특징이고 지난 1907년 이 병을 처음 발견한 헝가리 수의학자 요스젍 마렉의 이름을 따 질병명이 붙여졌다.

출처 : 연합뉴스

영국

축산쓰레기 이용하여 전기생산

축산 및 음식물 찌꺼기를 부패시켜 발생한 메탄가스를 이용해 전기를 생산하는 공장이 영국 남서부의 홀스워드(Holsworthy)에서 지난 5월 17일 처음으로 가동에 들어갔다. 이 공장은 바이오 가스(Biogas)를 에너지로 이용하기 위한 녹색에너지 생산계획의 일환으로 건립됐으며, 영국 파마틱사(Farmatic UK Jurgen Fink)가 그 주인공이다.

바이오 가스 생산을 위해 이 공장은 주변에 있는 30여 농가로부터 160만톤에 이르는 축산 및 음식쓰레기를 수집하고 있다. 이 공장의 한 관계자는 "영국에는 이러한 형태의 환경친화형 전기

생산시설에 관심을 갖고 있는 농민단체나 식품 기업들이 많다"고 밝히고, "바이오 가스를 이용한 에너지 생산잠재력이 매우 크며, 현재 공장을 방문하려는 사람들이 줄을 서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미 주변지역의 농가들로부터 농업 및 가축생산 쓰레기를 수집하고 있으며, 몇 주 후면 바이오 가스가 생산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공장의 찰스 클라크 공장장은 "공장에서 초과 생산되는 열수는 지역의 공공기관 건물에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될 계획이며, 개인주택들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러한 시설을 갖춘 공장을 설립하는데 약 1,200만 유로가 소요되었으며, 투자비의 절반가량은 유럽연합에서 지원되었다. 나머지 절반은 독일에 본사를 두고 있는 파마틱사가 부담했다.

환경보호 요구가 높은 독일에서는 이보다 큰 규모의 시설이 약 20 여개가 가동 중이며, 덴마크에서도 비슷한 수의 공장이 가동되고 있다.

출처 : Agroinfo Europe

이스라엘

깃털 없는 닭 육종 착수

이스라엘 과학자들은 사육속도가 빠르고 도축 처리과정을 절감할 수 있는 깃털 없는 신종 닭의 육종에 착수했다고 일간 예디오투 아하로 노트가 지난 5월 20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깃털 없는 닭의 사진을 전제하면서 텔 아비브 근처의 레호보트 농업연구소에서 육종 연구팀이 완벽한 깃털 없는 닭을 만들기 위해 연구 중이라고 전언.

과학자들은 깃털 없는 신종 닭은 성장속도가 빠르고 더위에 견디는 힘이 강하며 지방질이 적을 뿐만 아니라 도축과정에서 깃털을 별도로 뽑을 필요가 없음을 물론이라고 설명했다. ☺

출처 : 예루살렘 AFP=연합뉴스